

최종편집 : 2021-10-19 10:05 (화)

로그인 회원가입 BBS불교방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세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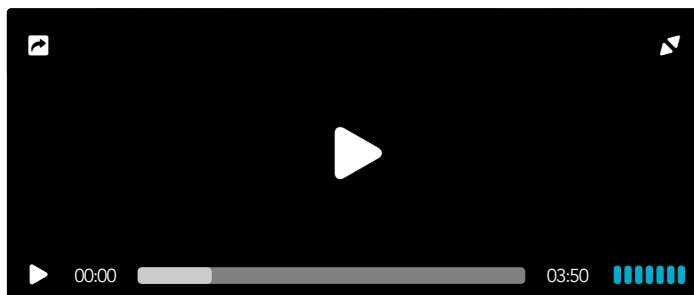
전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스포츠 불교 국제 전국 | BBS 인터뷰 BBS 칼럼 BBS 취재수첩 BBS PLAZA 인사/부고



홈 > 불교

삼보순례단 극진히 반긴 '통도사'...."국태민안과 민족평화의 길"

홍진호 기자 | 입력 2021.10.18 14:18 | 수정 2021.10.19 00:11 | 댓글 0



영상이 뜨지 않는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가 승보종찰 송광사를 시작으로 범보종찰 해인사를 지나 다다른 불보종찰 통도사에서는 극진한 환대와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통도사 방장 성파스님은 18일 동안 펼쳐진 423km의 묵언행선은 자리이타의 행이자 국태민안과 민족평화의 길이었다고 기렸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최신뉴스

- 불교 | '뇌허불교학술상' 20년 만에 부활한다
- 불교 | 제222회 중앙종회 정기회 11월2일 개원...내년...
- 불교 | 로터스월드-전국비구니회, 동남아 사찰 4차 지원...
- 불교 | 삼화사 국행수륙대제 10월22~24일로 연기
- 불교 | 조계종 12대 포교사단장에 김영석 현 수석 부단...

포토뉴스



인기뉴스

- 삼보사찰 천리순례 회향... "영취산 그대로가 법신 부처"
- "부하 여직원 상습 성추행 前 제주시 국장 '상습성 인장'..."
- 노인들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능한 늦게 가는 구조 만들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역경 제권 추진 박차
- 삼보사찰 천리순례, 18일 대 장정 마침표...통도사에서 회

기자

18일 동안 이어진 423km의 묵언행선으로 마침내 다다른 불지중가 국지대찰의 일주문.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을 시작으로 순례단원 모두의 목에 걸어진 명주 목도리는 영축총림 방장 성파스님이 직접 염색해 만든 겁니다.

회향식에서 방장 성파스님은 산에 올라가야 다리의 힘을 알 수 있다며, 수행을 실천한 이와 그렇지 않은 이는 다르다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성파스님/ 통도사 방장]

“산에 올라가면 다리의 힘을 알 수 있고, 입수에 경장단이라 물에 들어가면 길고 짧은 것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만행결사를 하신 분과 하지 않은 분과 다릅니다.”

이어 성파스님은 승보와 범보를 지나 다다른 삼보순례길은 스스로의 깨달음을 넘어, 국태민안과 민족평화의 서원을 세운 자리이타의 행이라 설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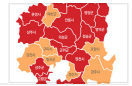
[성파스님/ 통도사 방장]

“우리가 오늘 이 행사는 우리 자신의 수행뿐만 아니고 자리이타의 행이거든요. 특히 국태민안과 민족평화 등을 염두에 두고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은 상월결사의 정신이 깃든 죽비를 회주스님에게서 받았으며, 이에 앞서 두 스님은 나란히 금강계단을 돌며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6 경북 16개 사군 '인구감소지역' 지정...경북도 '지방소멸'



7 오세훈, 전임 사장 추진사업 일제 점검...관련 단체 반발



8 [코로나19]부산 중학교 집단 감염 등 40명 확진



BBS칼럼

전경윤의 '세상살이'

전영신의 '사상'

신두식의 '공감노트'

배재수의 '크로키' NEW

이현구의 '스윗 스팟'

선임기자 칼럼

월 1만원 이상, 방송포교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회

가입문의 **1855-3000**

ARS 후원 **060-800-8000**
(한 통화 5천원)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 된 곳, 이 땅위의 모든 스님들이 이 곳에서 부처님을 만나 득도를 한 곳을 함께 돌며 현문스님은 자승스님의 3년 대장정을 기렸습니다.

[현문스님/ 통도사 주지]

“불교중흥의 기틀을 마련한 3년 간의 대장정은 상월선원 회주 이신 자승스님의 원력과 수많은 불자들의 참여가 이뤄낸 숭고한 구법의 여정이자 값진 인내의 여정입니다.”

영축총림 방장 성파스님은 회향식 후 차담자리에서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 옆자리를 지켰으며, 건너편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나란히 앉아 눈길을 모았습니다.

[스탠딩] 영호남을 가로지르며 12개 시군을 지나 마침내 부처님께 다다른 423Km는 1700여 년 한국불교 역사를 두 발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송광사에서 출가를 해 해인사에서 법을 만나고 통도사에서 부처님께 다다른 대장정의 도반 수행자들은 상월결사 2주년을 맞는 11월 11일에 회합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산 통도사에서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남창오/ 영상편집=장준호)



홍진호 기자 jino413@naver.com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추천
0



반대
0

당신만안본뉴스

‘큰스님의 아멘’ 각계 반향... “벽을 허무는 큰 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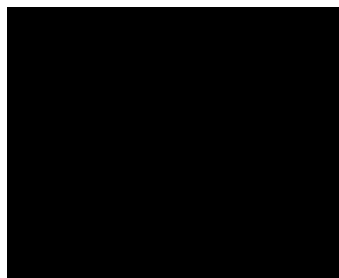
[코로나19] 서울 노원구 병원 관련 28명 확진...병원...

[배재수의 크로키] ‘위드 코로나’와 남산의 가을

국민의힘, 오늘 광주에서 첫 TV토론..5,18묘역 참배도

문 대통령 "청정수소 선도국가" 강력 추진

[뉴스파노라마 한글날특집] 김무봉 명예교수 “첫 한글...



윤건영 "이준석 대표, 여당(이재명-이낙연) 이간질 그...

'큰스님의 아멘' 각계 반향... "벽을 허무는
크리스천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주요기사



'뇌허불교학술상' 20년 만
에 부활한다



제222회 중앙종회 정기회
11월2일 개원...내년 예산



로터스월드-전국비구니회,
동남아 사찰 4차 지원 실시



삼화사 국행수륙대제 10월
22~24일로 연기



조계종 12대 포교사단장에
김영석 현 수석 부단장 선



김태연 주무관 "제주시 거
울철 고병원성 A차단 총

BBS NEWS

매체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BBS불교방송(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 대표전화 : 02-705-5114 | 팩스 : 02-705-522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재수
제호 : BBS 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1259 | 등록일 : 2010-06-03 | 발행일 : 2001-09-01
발행인 : 박형수(중하) | 편집인 : 전경윤

BBS NEWS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BBS 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bsi.co.kr

POWERED BY **NE**